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6, 2017 Vol. 599

지난 19일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교계 지도자들과 여러 다민족 지도자들이 은혜한인교회에 모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행사를 위해 기도했다.

북미한인루터교 총회가 중앙루터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 다민족 기도회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Back To the Bible'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다민족이 함께 모여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연합 집회가 오는 29일(주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이 대회를 통해 남가주 교회들이 성경적 가치관 회복과 참회 운동에 참여하며 미국과 한국, 모든 국가에서 대부흥을 위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 복음의 확산과 선교 완성도 기도 제목이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이 집회는 'Back To the Bible- 회개, 성결, 선교'라는 주제 아래 오후 5시 시작된다. JAMA 설립자 김춘근 교수와 함께 니토 푼테드 목사가 주제설교를 전한 후, 김경일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 실천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은 현 미국의 죄악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을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이어 본격적인 기도 순서에서는 회개, 부흥과 회복, 미국과 국가 지도자, 차세대와 선교, 어려움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된다. 대부분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기도를 이끌지만 라인인더샌드의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 더락처치의 타이 오스틴 목사, 저스티스파운데이션의 앨런 파커 변호사, 아주사부흥운동의 프레디 베리 목사, 국가기도의 날의 디온 엘모어 목사 등 타민족 지도자가 이끄는 기도 시간도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지난 19일 은혜한인교회에 모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우리는 미국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다민족기도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여 함께 기도해 왔다"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훈 목사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데 그 안을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기도회에서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라티노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흑인, 타민족 아시안, 백인, 이집트 교계 지도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참석해 이번 다민족 기도회의 중요성과 의의를 역설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루터의 개혁, 십자가 신학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예배

500년 전 마틴 루터는 교회개혁의 횃불과 같은 95개조 논제(The 95 Theses)를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부착했고 이 95개조 논제를 가지고 신학교 교수, 학생들과 토론하려 했다.

그 논제들 가운데 면죄부 판매와 직결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물질과 노력, 선행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임을 역설했다. 이 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한 무명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 개혁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 루터의 후예인 북미루터교 한인총회 주관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21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홍영환 목사(중앙루터교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개혁을 주도한 루터의 신학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며 "믿음 자체도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십자가로 이끌어 십자가 밑에서 믿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목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두가 만인사제의 직분을 갖고 선한 싸움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고 덧붙였다.

이어 2부 순서로 홍영환 목사의 신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교회력에 의한 설교집〉 출판을 기념하는 시간도 있었다.

"작은 사랑의 나눔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남가주 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최하고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회장 방하섭)가 주관하는 추수감사절 기념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가 오는 11월 12일(주일) 오후 4시 생수의강선교교회(안동주 목사,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허리케인과 산불로 인해 고통 당하는 이웃,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 동포를 돕는 데에 사용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남가주연세콰이어, 미주여성코랄, 오렌지선교합창단, This Ability Orchestra, 남가주밀알수어찬양단, 랜디 김 밴드와 타민족 찬양팀이 출연한다.

김기동 목사는 "후원된 헌금으로 사랑의 컵라면을 사서 나누게 될 것"이라면서 "컵라면 한 그릇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이웃과 타민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후원 문의) 714-262-1428

제24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이영수)이 오는 28일(토) 오후 6시 엘카미노칼리지 오디토리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연주회에서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수익금을 허리케인 수재민을 돕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과 함께 소프라노 신선미를 비롯해 호프국제대학교 찬양합창단, 매디슨 카스 등도 출연한다.

한편,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오는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다민족 기도회에서도 한인교계를 대표해 특별 찬양을 부를 예정이다. 문의) 310-396-6271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Oxford Ave, Serrano Ave, Pico Blvd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10K Service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항일(抗日)활동 (IV)

김인수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초기 한국 교회가 시행한 경제적 항일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이다. 일제는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 금융을 독점하였고,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었다. 도로를 신설, 보수하고, 고용인들의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상태였던 조선 조정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진 빚을 갚아야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선각자들 사이에서 국가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을 일컬어 국채보상운동이라 한다.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은 경북 대구다. 출판사 광문회(廣文會)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서상돈(徐相敦) 등이 중심이 되어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함으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주로 금주, 금연운동이 주축이었다. 노동자 중심으로, 외채를 진 것은 민족의 수치일 뿐 아니라 결국 경제적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란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 여러 언론기관들이 이 사실을 집중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모금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각지에 지회가 조직되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진 빚이 1906-7년 동안만 해도 1,3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런 빚을 지고는 국가가 결코 자주독립을 할 수 없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 빚을 2천만 국민이 3개월간 금주, 금연하여 모은 돈으로 갚자는 취지였다.

이 운동은 초기부터 금주, 금연을 교인들의 엄격한 신앙생활 훈련으로 실천해 온 교회의 지침과 맞물려 교회는 애국운동의 한 방편으로 이 운동에 적극 나섰다. 국채보상운동 본부를 서울 YMCA에 설치했다. 교회는 사경회, 강연회, 토론회, 음악회 등을 통해 교인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와 이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운동에 호응하여 여러 기독교계 단체들이 구성되었다. 서울여자교육회, 진명(進明)부인회, 대한부인회 등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도 선천 의성회(宣川義成會), 안악 국채보상탈환회(脫環會), 제주도의 삼도리(三道里)부인회 등이 결성되었다. 고종 황제까지 이 운동에 호응해, 친히 담배를 끊고 보상금을 하사해 주었을 뿐 아니라, 고급관료, 지식인, 상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등 하층민에게까지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여성 중심으로 벌였던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탈환회다. 탈환(脫環)이란 글자 그대로 '반지를 뺀다'는 의미다. 국채보상을 위해 반지를 빼어 바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방법과 의의를 취지문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 각 사람이 몸둔 곳은 나라이라.……나라 한번 망하고 보면 당상(堂上)에 늙은 부모는 장차 어느 곳에 장사하며 강보의 어린 아이는 장차 뉘의 종이 될는지요.…… 국채 1,300만 원을 갚을 방침은 우리 동포 마음에 있는 줄 압니다. 대범 2,000만 중 여자가 1,000만이요, 1,000만 중 지환 있는 이가 반은 넘을 것이니 지환 한 쌍에 2원씩만 셈하면, 1,000만 원이 여인의 수중에 있다고 불 수 있으니……깊이깊이 생각하면 못 할 일이 아니오니 어서 속히 결단하여 지환을 바침으로 국채를 갚는 날은 나라의 행(幸)이요 생명의 행이외다."

또한 패물폐지(佩物廢止) 운동도 일어났는데, 그 취지서를 보면, "……2,000만 [인구] 중 1,000만이 여자가 될 터인데 저마다 전재(錢財)는 충족하지 못하나 3원 이상 값이 되는 금, 은 패물 등속은 있을 터이온 즉 갹출하면 3,000만 원 가량이라. 1,000만 원으로 국채보상, 1,000만 원으로 은행설립, 1,000만 원으로 학교를 창설하면 조국에 이익 됨이 소소한 패물에 비하리오.……패물이라는 것은 매일 소용되지 못하고 의장 속에 일 푼의 이식(利息)도 생효치 않고 혹시 차고 보면 심히 무겁고 옷을 상하니 없어도 무방할 것이외다.……우리 국민이 남의 빚을 산같이 지고 패물을 차는 것은 발가벗고 은장도 차는 격이라 발기인 일동은 약간의 패물을 연조하여 패물폐지회를 조직, 취지를 선전하옵니다."라 하였다.

이렇게 교회 여성들이 패물을 모아 나라의 부채를 갚고 은행도 설립하고 학교도 세워 국가의 내일을 기약한 일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1908년 5월까지 모두 231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제가 이런 시민운동을 그대로 방치할 리 없었다. 이를 항일운동으로 간주한 저들은 이 운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성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의 총무 양기탁(梁起鐸) 등 여러 지도자들에게 공금을 횡령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워 재판에 회부하는 일을 자행하는 등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이 운동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합법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투철한 정신을 보여 주는 한 대목이다.

여성들은 또한 감선회(減膳會)를 조직했다. 감선이란 식사 때, 반찬을 줄여 먹는 일을 말한다. 감선은 본래 국난을 당했을 때 임금이 삼가고 절제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반찬 수를 줄인 것을 말한다. 교회는 이 운동을 일으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교인들이 사치스럽게 찬을 여럿 놓고 먹는 것을 경계하고 절약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부산 사천리에서 조직한 감선회의 취지문에,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지라. 외채 1,33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 대한강토 삼천리를 보존키 어려워라.……충군애국지심이 어찌 남녀가 다르리요. 우리가 살림을 절용하여 조석 반상기에 매일 3~4푼만 감하여도 일월지간에 남는 것이 신화(新貨)가 10전 가량이나 될 것이니 다소를 불구하고 성심 협력 국토를 안전히 하옵시다."라 하여 여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이런 여러 운동은 백성들 스스로, 기울어져 가는 국가의 운명을 구하려는 힘겨운 몸부림이었다. 이런 운동이 비록 국가를 구하지는 못 했지만, 국가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신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종교개혁과 이민교회 포럼 등

오는 11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2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남가주 동신교회(백정우 목사,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에서 열린다.

이 설교 대회는 차세대 이민교회와 전세계 선교지를 섬길 신학생들이 개혁적 설교를 선포하며 건전한 설교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돕고자 열린다. 이번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 정신을 기리는 의미도 크다.

올해는 한인신학교는 물론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까지 10개 이상 학교로부터 학생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전화 213-384-5232)로 하면 된다.

또 11월 7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 개혁 포럼이 "종교개혁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다.

권연경 박사(숭실대 교수)가 종교개혁과 현대 교회의 위기 진단 및 해결 모색에 대해, 민종기 박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종교개혁과 이민교회의 현재적 진단, 정성욱 박사(덴버신학교 교수)가 종교개혁과 미래적 전망,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가 종교개혁과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 각각 발제한다.

발표 후에는 이승현 박사(ITS 총장), 고태형 박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 교수)가 논찬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문의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로 하면 된다.

미주장신 개교 40주년 음악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이해 후원 음악회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오는 11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개최한다. 이 음악회에서는 조혜정 교수가 지휘하며 차혜진 씨가 반주한다. 카이로스 싱어즈, 가야금 이정화, 소프라노 최은원, 첼로 박수정 등이 출연한다.

이번 대회를 준비 중인 NCA 관계자들. 사진 가운데가 제이슨 송 교장.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위한 장학금 모금 골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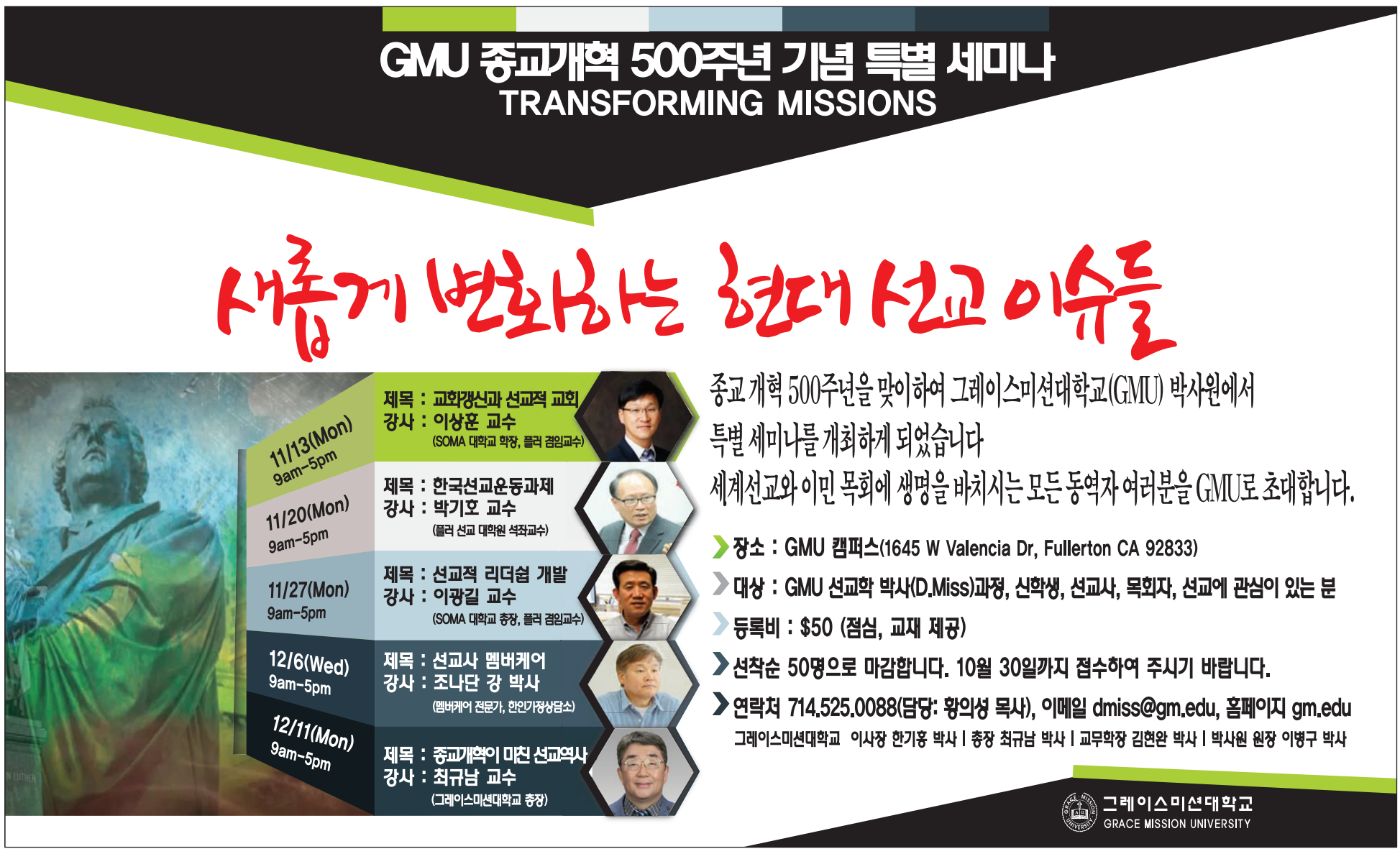
명문 기독사립학교인 새언약초중고등학교(NCA)가 오는 10월 28일(토) 정오에 장학금 모금을 위한 제6회 골프 대회를 연다.

이 학교는 매년 골프 대회를 열어 장학금을 조성해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들에게 지급해 왔다.

이 학교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WASC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모든 기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회 참가 및 티켓 구입, 상품 헌물, 책자 광고, 장학금 직접 헌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라하브라에 있는 웨스트릿지 골프 클럽에서 열리며 골프 대회와 함께 푸짐한 상품, 점심, 저녁 식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문의) 213-487-5437



미성대학교 제13회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다.

미성대학교 후원의 밤 행사 열려

ATS, ABHE 가입 이어 경영대까지 설립

미성대학교 제13회 후원의 밤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10월 22일 부에나팍 홀리데이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15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참석해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특히 미주성결교단의 이상복 총회장 등 현 임원들은 물론 전 총회장들도 다수 참석했다.

미성대는 최근 ATS 준회원, ABHE 정회원 인가를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연방정부 장학금과 융자 프로그램도 승인 받았고 경영대학과 대학원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류종길 총장은 "우리 학교 역사의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면서 "여러분처럼 신실한 분들과 함께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학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원의 밤에서는 김광렬 목사(이사장)의 사회로 이상복 총회장이 설교했고 이정근 명예총장이 축도했다. 모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과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왔으며 김기동 목사(이사)가 후원 안내 및 약정 시간을 인도했고 임덕순 장로(본지 이사장)가 축사를 전했다.

이날 조남국 목사(광명중앙성결교회 원로)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이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음악회를 소개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10회 연주회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의 제1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1일(토) 저녁 6시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이사장 양기호 목사는 "이번 제10회 연주회를 통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에버그린여성합창단, LA 영 플레이어스 합창단, LA 남성선교합창단 등이 찬조 출연한다.

이 합창단은 단장 강평근 목사, 지휘 이재경 목사, 총무 백선용 목사 등이 섬기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연습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연주회에 앞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11월 7일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에서도 찬양할 예정이다.

쉘비 권 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오늘 거두신다면

조강암 선교사, 나눔과섬김의교회 간증집회

나눔과섬김의교회에서 조강암 목사 간증집회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당신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몇 명을 전도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조강암 선교사가 세운 교회만 해도 필리핀 지역에 100여 개가 넘고 예수 믿고 영접한 성도만 해도 수만 명이다. 그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지만, 직접 발로 뛰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영혼이 몇 명이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며 지금도 직접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18일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야 김 목사) 수요집회에 조강암 선교사가 찾아왔다. 마태복음 4장 1-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조 선교사는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육을 자극해 영성과 거룩성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의 유혹은 달지만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을 본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4년 전 필리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조강암 선교사는 아이타 지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한국교회와 필리핀 아이들을 연결해 양육을 돕는 1대 1 입양 사역 및 재활, 교회설립과 목회자 양성 및 파송을 통해서 필리핀 전 지역 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다.

최경철 사무총장이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전하고 있다.

한인교회 대상으로 소망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최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소망교육 세미나를 활발히 열고 있다.

163차 소망세미나는 10월 15일 코로나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주일 예배 후 시니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김미혜 사무국장이 '죽음 준비 교육과 소망유언서 쓰기'를, 카이론 토탈의 에린 김 임상사회복지사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강의하였다. 특히 에린 김 복지사는 치매 증상은 그 원인에 따라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면서 환경과 생활습관이 치매 예방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삶의 마지막 숙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164차 세미나는 인랜드교회에서 실시됐다. 18일 실시된 세미나에는 시니어 대학인 에버그린의 참가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경철 사무총장은 죽음준비 상황극을 통해 가족의 죽음을 맞게 된 경우,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실연함으로써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어 김미혜 사무국장이 이러한 죽음준비의 일환으로서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오직 성경으로” 변질된 교리·종교적 허상 벗기자

종교개혁 500주년 신학자 선언 발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인 10월 31일을 10여일 앞두고 국내 신학자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양대 신학회인 한국기독교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를 비롯해 한국개혁신학회와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가 20~21일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됐다. 근래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학술대회인 만큼 이틀 동안 세 번의 분과별 발표를 통해 총 78개의 논문이 소개됐다. 각 논문은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을 다방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성찰한 것들이다. 여기에 두 번의 주제강연과 세 번의 예배, 대토론회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인 심상법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의 기독교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저항’과 ‘변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양식을 낳은 종교개혁의 두 키워드는 오늘의 침체된 한국교회를 돌아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선 “진보와 보수를 넘는 보다 진솔한 토론의 광장이 되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는 지성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노영상 박사는 “신학과 목회, 신학교육과 사회적 실천 전반에서의 개혁을 검토하고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진단하는 이번 학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개혁신학회 회장 김재성 박사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정치투쟁이나 도덕적으로 사회를 갱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며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새롭게 제기한 성경의 가르침들은 신학적인 교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은혜의 신학이 펼쳐지면서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유산과 교훈들이며, 그것은 모두 다 성경에서 터득하고 배운 것들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신학사상, 교리적 가르침, 중심적인 교훈들은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한 토론과 탐구의 결과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회장인 이종윤 목사는 “이제 우리는 500년 전 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에 감사하고 그것을 복습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성경적 교회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굳게 붙들고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거듭나자”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신학자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첫날 개회예배 후 김재성 박사가 발표한 이 선언문에서 신학자들은 총 10개의 항목에서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신학자 선언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의 신학자들과 참가자들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95개조 조항을 발표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며, 종교개혁의 신앙적 유산을 재조명 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회복과 사회적 갱신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개혁코자 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이에 우리도 근본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릇된 신학과 전통에 맞서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여 변질된 교리와 잡다한 종교적 허상들을 벗겨내어 기독교의 복음을 제시하려 했던 개혁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음을 고백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3.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세상과 교회를 향해 선포할 것을 다짐합니다.

4. 우리는 인간이 성취와 종교적 업적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와 성화 그리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종교개혁자들의 복음 선포가 지금도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5.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썼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근거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6.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상호존중하였으며 진리를 회복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자 연합과 일치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에 유의하면서, 오늘날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쓰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합니다.

7.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과 부패에 맞서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과 주변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날마다 선한 싸움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샬롬을 성취하기 위해 국가 간의 폭력, 특히 오늘의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전쟁의 위기를 끝내야 하며, 불의한 사회 상황이 가져오는 폭력, 또 자연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생태계의 파괴를 극복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8.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눌린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목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 철학과 개교회 중심주의, 성장주의, 권위주의 등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며,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각종 증오와 갈등을 사랑으로 감쌀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9. 기술자본주의 시대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역설적으로 삶의 환경은 황폐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 내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전을 기대하면서, 그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책임적 윤리 의식을 잊지 말 것을 다짐합니다.

10. 신학은 겸허히 교회를 섬겨야 하며, 교회는 신학 앞에서 항상 자신을 조망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신학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신학이나, 신학 없는 교회는 온전치 않은 것으로, 우리는 신학무용론의 반지성주의와 교회 없는 신학의 공허함을 모두 경계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모든 일에 겸손하면서도 용기와 희망의 확신을 갖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진리를 적용하고 발전시켜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명에 헌신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참가자 일동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9〉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는 난민 선교사역을 하면서 소망으로 품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이다.

1950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했고, 가난했던 한국 민족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 믿음을 시리아 난민들에게 둔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민족,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민족처럼 보인다. 세상은 “그들은 망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들은 사방의 나라들로 수백만이 퍼져 나갔다. 유럽의 나라마다 골머리를 앓으며 그들을 업신여긴다. 그러나 지금 그들로 인해 나라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먼저 터키다. 4백만이 넘는 난민을 받았다. 이스탄불부터 앙카라 등 대도시는 물론 작은 도시까지 쉽게 난민들을 본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다. “난민은 곧 교회다.” 지금은 아랍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 같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민족이지만 그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점점 더 퍼지고 있다. 터키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그들을 도우면서 터키 교회가 눈을 뜨고 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자기 나라에 밀려 들어 온 난민을 위해 비록 자기들도 국가가 파산된 재정 적자의 나라임에도 그리스 교회가 빵을 나눠 주고 있다. 그리스 교회가 그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 서고 있다. 영국이 이슬람화 된다고? 정녕 아니다. 보라! 세계선교를 주도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런던 내지선교회가 있는 나라다. 한국 선교의 주역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다. 서구의 영성을 깨운 스펄전 목사의 나라다. 잠시 주님 곁에서 멀어졌으나 영국 교회는 난민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난민을 통해 죽어졌던 유럽의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지금 난민은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들을 사랑으로 받은 나라들은 다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우리다.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고 부유한 환경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먼 나라 구경거리로만 아는 미국의 교회가 난민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미국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얼바인 에버스톤 교회

예배 장소 이전 감사예배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교회 감사예배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말 씀** : 강일하 목사 (CGNTV 미주 대표)
- **특 송** : 얼바인 온누리 교회 남성 중창단
- **일 시** : 2017년 11월 5일(주일) 오후 1시
- **장 소** :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연락처** : T.(714)732-2877(김관호 담임목사)

www.jangseok.org

에버스톤교회 성도들

가정 천국 영적 공동체

시편 128: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앙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사라와 함께 신앙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회개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각 하는 것이 저절로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잘 믿는 믿음입니다.

1절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敬(공경할 경) 畏(두려워 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 하면서 진심으로 섬기고파 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하지만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고 지극 정성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에서 도는 道(길 도)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실천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최고의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정성으로 섬기고픈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이중적 복된 개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 몫이 되게 하시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꼭두새벽부터 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네가 했지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네 수고한 결과를 가로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쌓아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죄인이 하고 그 죄인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네 하는 일이 형통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잘 익은 포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잘 영글었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기 믿음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영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들까지 성령이 충만한 영적 자녀들로 잘 양육 했다는 말씀입니다. 끼니 때마다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더 잘 섬기고픈 소원 그런 가장을 모신 대다가 그 가장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과 가정에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은 형통하도록 해서 네가 수고한 데로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복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포도송이처럼 아주 알차고 탐스럽게 잘 영글은 결실한 그런 모습이고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순수하게 자기 의지나 주장이 없이 완전히 성령에 점령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리 정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그 진리 정통한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탐스럽게 결실해 잘 영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외가 믿음이 아주 모범적이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다윗을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적 지시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인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정통한 교회를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진리 정통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신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신앙심에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복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바로 그가 속한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드나들면서 영적 지도를 목자로부터 제대로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파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가정을 이끌어 가며, 그 가장의 신앙이 신앙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아내는 잘 영글은 포도송이 같고, 어린 자식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곳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천국을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합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잘 영글어 진리와 성령으로 탐스럽게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소망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이끌리며 그 목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한샘교회 창립 감사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샘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시작되어 1911 Wilshire Blvd 에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준비위원 김병호, 김정일 배상

일시 2017년 11월 5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한샘교회 예배당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담임목사 이순환

은혜의 샘, 생수의 강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el. 213.505.3838 E-mail : yes9389@hotmail.com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 심장, 뇌 혈전 용해 |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100% Organic* (유기농)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산성		중성				알카리성
						셀라케어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뉴욕효성교회와 병원선교회를 섬기는 김영환 목사와 이영미 사모

“도둑 잡아라” 맨몸 던져 소매치기 제압한 한인목사 화제

뉴욕효성교회 김영환 목사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하다 달아다던 절도범을 60대 한인목회자가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효성교회 담임인 김영환 목사는 20일 오후4시30분경 루즈벨트애비뉴와 149가 사이에서 40대 한인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던 10대 절도범을 기지를 발휘해 현장에서 잡았고 용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인근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 김영환 목사는 당시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그 부근을 지나다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후러싱제일교회 앞에서 한인 여성을 밀어뜨린 후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는 중이었으며 김영환 목사는 “도둑 잡아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지나던 절도범의 허리를 잡아 제압했고 당시 옆을 지나던 시민도 용의자도 합세해 경찰에 용의자를 인계하는 것을 도왔다.

김영환 목사는 “같은 날 낮에도 한 한인이 날치기를 당하는 것을 멀리서 목격했었다”면서 “최근 한인 여성들을 밀어뜨리고 핸드백 등 귀중품을 빼앗는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영환 목사는 평소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이번 일도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 쓴 행동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환 목사는 평소 병원선교회를 통해 양로원 한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를 당할 뻔했던 한인 여성은 김영환 목사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 했는데 목사님의 용감한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천 · 조은주 선교사 부부

사랑의 세발 휠체어로 사랑을 전하세요

‘사랑의 세발 휠체어’를 제작·보급하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조동천·조은주 선교사 부부가 사랑의 휠체어 1000대를 목표로 북미주 전 지역을 자동차로 달린다.

선교사 부부는 내년 2월 20일까지 120일 동안 미 전역을 순회하며 경비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에서 쪽잠을 자며 휠체어 1천대 기금인 12만 달러를 모금하는 대장정 중이다. 조 선교사 부부는 오는 30일까지 애틀랜타에 머물며 각 교회를 방문해 선교보고를 하고 재정후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조동천 목사는 미국에서 27년간의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7년 전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사역을 시작했다.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이웃들을 섬기는 장애인 선교 단체로 프놈펜 시내 중심의 21개 지역을 찾아가 휠체어를 직접 전해주고 있다.

선교사 부부는 2011년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의 지원을 받아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선교사 부부는 프놈펜 중심으로 찾아간 곳에서 네 발 휠체어의 문제점을 깨닫게 됐다. 도로 포장 상태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네 발 휠체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세 발 휠체어였다.

조 선교사는 “가난한 빈민국가에서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시골에 사는 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발 휠체어를 만들게 됐다. 캄보디아의 시골에서는 더 실용적으로 사용되며 더욱 수월하게 학교와 일터를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1000대(1대의 비용은 한화 13만원 / 미화 120달러)를 제작할 수 있는 12만 달러가 올해의 목표다.

후원 문의) 201-704-7774

chosamo2008@gmail.com

윤수영 기자

스미스 교도소 재소자 침례 받고 새 삶 다짐

Global Mission Alliance(이사장 김성택 목사, 이하 GMA)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국내선교위원회(유진형 장로)가 지난 13일 조지아 남부 그랜빌 소재 스미스 주립 교도소를 방문해 결신자 세례식 및 성찬예배를 드렸다. 스미스 주립교도소는 GMA 소속 김철식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으로 중범죄자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30% 가량이 종신형 재소자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아틀란타 소재 벅헤드 침례교회(담임 윌리엄 기븐스 목사)의 후원으로 약 200여 명 재소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윌리엄 기븐스 목사는 새로이 예수를 영접한 17명의 형제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김철식 선교사는 “지난 전도 집회가 끝난 뒤, 30명의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오늘 17명의 재소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앞으로도 세례를 주고 세례증명서도 수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A,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 ~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신조우 목사 ⓒ복대교회 홈페이지

신조우 목사 영락교회 담임목사 청빙 거절

복대교회 교인들 만류 때문

영락교회 당회가 이철신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청주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를 청빙하기로 했으나 신 목사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신 목사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복대교회 당회와 교인들의 만류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거절 이유를 듣기 위해 복대교회에 연락했으나 이 교회 관계자는 "(신 목사가 영락교회 담임목사로) 가지 않기로 하신 건 맞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1997년 12월 영락교회로 부임해 이듬해 1월 위임목사가 된 이철신 목사는 올해 12월이면 시무기간이 만 20년이 돼, 은퇴할 경우 원로목사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 목사는 올해 만 65세로 교단(예장 통합)법이 정하는 정년(만 70세)까지 더 시무할 수 있지만 조기 은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조우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복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장신대 동아리 '동성애' 주제 강연 기획했다 취소

성소수자 사역해 온 목회자 강사로 초청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공식 동아리인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가 친동성애자 목회자로 알려진 이를 초청해 25일 교내에서 '목회현장에서 만난 성소수자들의 신앙과 삶 이야기(동성애: 현장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암하아레츠가 초청했던 강사는 장신대와 동 대학원을 나와 현재 국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사역도 아울러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강연은 암하아레츠가 교내 곳곳에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예장 통합 측이 지난달 제102회 총회에서 장신대를 포함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수 없도록 결의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런 강연이 기획된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결국 학교 측이 암하아레츠 측에 행사 취소를 권고하면서 강연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는 23일 논평을 통해 "통합교단 신학교인 장신대 구성원들이 총회결의를 가볍게 무시하고 엇박자를 내듯 동성애 옹호자를 초청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는 신학생들의 아집스런 교만과 불순종의 태도이기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강연을 취소하기로 한 암하아레츠는 그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강연 대신 '강연취소 기념파티'를 같은 날 갖겠다고 다시 공지했다. 그러면서 장소는 비밀에 부쳤다.

또 이날 토크콘서트를 열겠다며 여기에 참여할 특별 게스트의 이름을 'JYP'로 표기했다. 이는 당초 강사로 초청하기로 했던 목회자의 이름 영어 이니셜과 같다.

김진영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 백석대에서 열려

바울서신 2,033절 티셔츠 입고 기네스 도전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연합예배 및 기념행사가 25일 오후 4시 천안 백석대학교 천안캠퍼스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교계와 정부 인사, 신학생 등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합예배 및 기념행사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주최하고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목사)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후 한교연 회의실에서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 등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와 행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말씀 회복, 다음세대 세우기 등 사역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교연 사무총장 대행 최귀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기도와 참석자 소개에 이어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와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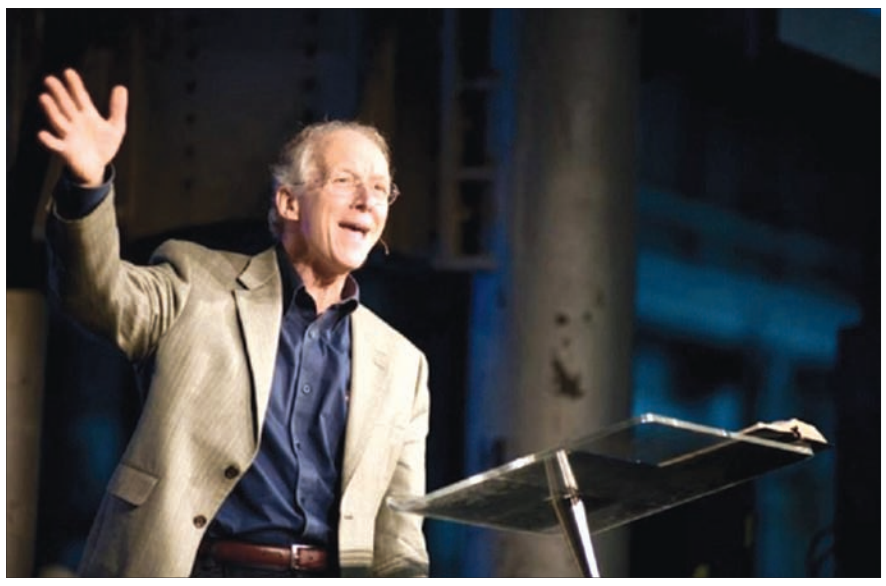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종교개혁 정신에 걸맞게 한국교회가 개혁하고 갱신함으로써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나 스스로 내적 각성과 회개운동으로 전개되어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개최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예배 및 기념행사에서는 정서영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장종현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유충국 목사(대신 총회장)가 종교개혁 500주년 선언문 및 실천강령을 낭독하고, 전국 신학교 신학생 대표의 실천강령 수여식도 거해했다.

이어 2부 행사는 백석대학교 재학생들과 전국신학생 대표들 2,033명이 신약성경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서신 2,033절을 한절씩 새긴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 대형으로 촛불을 밝히는 행사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존 파이퍼 목사 ⓒ페이스북

삶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잃는 것보다 나쁘다

파이퍼 목사 "자녀들과 선교여행, 깊이 고려해 보라"

존 파이퍼 목사가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험한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면서 "설사 죽는다 해도 이는 아이들에게 값진 영원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웹페이지 DesiringGod.com을 운영하고 있는 파이퍼 목사는 최근 "기독교인은 전 세계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선교지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선교여행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선교여행은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안전함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안락함을 버리고, 망명자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부인을 배우고 위험을 대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잠언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잃는 이유는 그들을 군사로 훈련하는 대신, 편하고 안전하게 훈련했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어떠한가? 적대적인 이들 가운데서 지내고, 야외에서 누워자고, 35도 이상의 열기를 느낄 때에 아이들에게 전쟁시의 생존법을 가르치라. 오라, 나의 귀한 자녀들아. 왕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우라"고 조언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편안함을 당연히 여기고, 안전함을 바라며, 위험을 회피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죽음보다 나쁜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한다"면서 "이는 단순한 성경의 실제이다. 쉽지 않다. 복잡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보다 훨씬 나쁜 것들이 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주려고 해야 한다. 선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라고 약속하셨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생명,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려간다 해도, 그들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다양한 나라에 데리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이같은 진리를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지난 2009년에도 "만약 삶의 위험에 처한 모두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는 "여러분이 스스로와 배우자, 자녀들을 위험과 고통없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곳, 다른 사역지로 옮겨야겠다'고 인식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英 교회 부설 초등학교에서 죄와 지옥 가르치자 학부모들 반발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노출됐다" 주장

영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죄와 지옥'에 대해 가르치자 학부모들이 반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크로스티치(Cross-Teach)는 영국의 턴브리지 웰스에 소재한 세인트 존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 죽은 이후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노출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 자선단체인 크로스티치의 웨인 해리스 국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해당 교회의 가르침을 반영해 왔고, 그 지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또 교회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6년 동안 학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해롭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우려를 제기한 교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반대로 학교 측은 크로스티치의 헌신과 양질의 사역에 대해 일관되게 감사를 표시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의 한 학부모는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도 성육신이나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 역시 기독교와 관련이 없었다. '너무 지나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학교의 기독교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중을 무시하는 기독교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해로운 이데올로기에 노출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단 터비 교장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라 더 이상 이 단체에게 수업을 맡기거나, 조례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터비 교장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극단주의적 가르침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해 매우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상태였다"면서도 "이 단체와 인연을 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크로스티치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는다. 그들의 선한 이름에 흠집을 낼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몇 달 동안 제기된 극단주의라는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학교에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일보, FHI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성경의 처음 노래와 마지막 노래

민종기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은 많은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거의 노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시편 모두가 노래입니다. 욥기서나 아가서도 노래 형식입니다. 아가서는 오페라의 가사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노래 중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 성경 속에서 첫 노래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말은 운문, 곧 시의 형태로 적혀 있으니 노래 가사였을 개연성이 큽니다. 라멕은 자신의 살인으로 두려워하는 두 아내를 향하여 시와 노래를 지어부름으로 아내들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노래는 칼의 노래, 살인의 노래, 교만의 노래, 보복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노래가 살인의 노래였다면, 마지막에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성도가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와 내용이 계시록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노래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첫째로 그 노래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둘째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짐승, 짐승의 우상,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한 백성입니다. 거짓선지자가 만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도전을 받으면서도 짐승의 표시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셋째로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특별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그들은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이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홍해 해변에서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른 사건이 연상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양의 노래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노래하는데, 이 장소는 바다에서 나오는 두려운 짐승, 곧 제국을 통치하는 짐승이 나온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리바다처럼 잔잔하여졌으며, 심판의 불이 떨어진 흔적이 나타나 보입니다.

넷째로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에 대한 높임입니다. 주님은 만국의 왕이시며, 만 대의 왕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이시며, 정의로우시며 참되신 분이십니다.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드릴 분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와 거짓 선지자의 종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세속도시가 관장하는 경제로 핍박하던 사탄 곧 용의 세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성도들의 찬송만이 널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풍파의 바다를 건너 천국으로 행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찬송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돈

김한요목사
베델한인교회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크루즈를 다녀오신 장로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운하 통관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큰 배가 통과해야 하니 몇만 불은 하겠네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만불입니다."

거의 백만불의 통관료를 낸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를 건너가면서 실질적으로 약 7천 8백마일 돌아갈 뱃길을 절약한다는 말에 당연히 그 정도의 통과요금은 내야겠다는 생각이 즉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하를 건설하면서 약 7,000명의 순직자가 있었다고 하니 백만불의 요금은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한 가격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아 있는 시간'으로 정의한다면 수많은 생명으로 저당잡힌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산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놓고, 혹은 터널을 만들고 요금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간 절약의 유익을 주니, 당연할 것입니다. 프리웨이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도 더 이상 무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이겠지만 유료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유료도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리를 단축하고,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는 교통 편의가 언제부터인가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은 돈이 된 것입니다. 비자 신청할 때, 접수된 서류가 빨리 진행되도록 급행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을 두 배로 주면 총알택시도 탄다고 합니다. 자동차 승객 두 사람 이상 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카풀라인도 이제는 운전자 혼자만 타도 요금을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급행선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엑스트라 요금을 내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년에 한 번씩 아주사 신학교(Azusa Theological Seminary) 엘에이 분교에서 맨토링 클라스를 가르칩니다. 그때 저는 주로 기차를 타고 엘에이로 출근합니다. 트래픽을 뚫고 가는 편리함도 있지만, 기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타고 가는 한 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컴퓨터를 열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따로 요금을 내면서 기차를 타게 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미 서부에서 동부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레드아이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절약입니다. 잠을 자면서 동부로 가서, 동부 시간으로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오늘도 쟁쟁하게 우리 귓가에 울립니다. 세상은 돈을 내면서 시간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시간 절약하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돈을 낼지라도 시간을 사는 가치 있는 시간은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종착점을 향해서 오늘도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24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치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월을 사십시다.

욕심으로 먹은 음식

김성민목사
팰리세이드교회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던 중 두 가지로 결정을 좁혔다. 한 가지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음식 모두를 잘하는 뷔페식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 음식 전문점이었다. 그런데 그 뷔페식당이 일본 음식도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민은 더 심해졌다. 가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세계 음식을 모두 하는 뷔페식당으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모처럼 정말 많이 먹었다.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지불할 돈이 아깝지 않다고 여길 때까지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음식은 좋았는데 나의 몸이 그 많은 음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다음 날까지 먹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해 보니 그 친구도 비슷한 고통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한마디로 미련했기 때문이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어야 했는데 돈 아까운 생각에 많이 먹는 어처구니없는 미련함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고통스럽게 하루 이틀을 보낸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무엇 때문에 믿고 어떻게 믿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게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건만 그 많은 것을 나 중심적인 욕심과 쾌락으로 살아갈 때에 뷔페식당에 가서 먹고 오히려 병을 얻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잠언 28장 25절)라고 말씀하신다. 좋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며 즐겁게 누리면서 산다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 위주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 말씀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그 이유는 축복에 관한 말이 아니라 회개와 돌아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축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마음을 기경하여 고치고,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것은 모두 빼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먹으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늘 무언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뷔페식당에서 내가 먹던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먹는 습관을 키워야 하듯이 이제라도 믿음 생활 전체가 잘 균형 잡힌 모습을 갖도록 힘을 써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입에 쓰든 혹은 달든 모두가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개혁교회, 사회정치·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높여야”

개혁신학포럼 제14차 정기세미나 ‘개혁주의 윤리’

개혁신학포럼(대표 이경섭 목사) 주최 제14차 정기세미나가 ‘개혁주의 윤리’를 주제로 충남 태안 안면도 예가펜션에서 16-18일 2박 3일간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소위 ‘유보적 칭의론’을 비판하며 개혁주의 ‘이신칭의 교리’ 수호에 힘쓴 개혁신학포럼은 이번 포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진영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통렬한 회개운동이 먼저

포럼에서는 이승미 박사(전 고신대학원장)의 개강강설 ‘개혁주의 윤리를 말한다’를 시작으로 첫날 김현경 장로(전 숭실대 교수)의 클래식 공연과 바베큐 파티, 건강특강 등이, 이튿날에는 최더함 목사(바로선교회)의 아침 경건회 후 최덕수(현산교회) 목사의 ‘개혁주의 목회윤리’,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의 ‘개혁주의 정치사회윤리’, 황갑수 목사(함께하는교회)의 ‘개혁주의 가정윤리’, 신호섭 교수(고려신학교)의 특강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 등이, 셋째날에는 박상경 목사(합동총신학원 총장)의 아침경건회, 최덕성 총장(브니엘신학교)의 기조강연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종합토론, 이경섭 목사(인천반석교회)의 폐강강설 ‘개혁주의 윤리는 이신칭의 윤리입니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먼저 이승미 박사는 “교회가 사회를 새롭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세상에서의 등불은 꺼지고 소금은 맛을 잃었음을 실망하는 이들이 많다”며 “교회가 세상의 짐을 져 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고 있다며 탄식하는 소리도 들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5가지 문제로 △헌금 강요 △파벌과 인맥 등 세력 다툼 △교회 세습 △성경의 정신보다 우위에 있는 교회의 관습과 목사의 방침 △목회자 신격화와 비판 금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영성과 도덕성의 보다 구체적인 회복을 위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단순히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은총보다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며, 성경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교인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회개운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한국교회의 어둡고 부끄러운 문제들이 먼저 나의 책임임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할 것 △회개한 주의 종답게 겸손히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것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사랑을 실천할 것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생활로 남들을 부요케 할 것 △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것 등을 권면했다.

◈목회윤리 〉 개인윤리+사회윤리

최덕수 목사는 목회윤리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포괄해야 하며, 기독교 윤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율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인간의 죄성으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수적 성장에만 매달리고, 각종 범죄 사건에 목회자들이 연루되기도 했다”며 “‘목회윤리’라는 단어에 얽매여 ‘종교’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만 취급해선 안 된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뤄져야 하는 윤리적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일반 삶의 영역에서도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윤리를 따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구원만 강조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이기까지 한 구원관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와 모든 관계의 회복을 함께 말씀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개인의 삶은 물론, 개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한국 교계와 사회적인 구조와 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 되도록(마 5:48) 해야 한다”며 “기독교윤리의 지향점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율법이다. 율법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됐지만, 공평과 자비와 사랑의 법은 더 분명해졌다. 율법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은혜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에는 순종, 불의에는 저항

신동식 목사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하여’ 발표했다. 그는 “개혁파 신학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회정치 혹은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모든 정신이 집중돼 있으나, 우리가 물려받은 개혁파 신학의 모습에는 편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신자의 삶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로 진리를 전하고 삶으로 현장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때 개혁파 전통의 사회정치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개혁파 신학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균형잡혀야 한다”며 “이러한 가운데 국가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는 정부와 정치참여, 사회개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현실적 국가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했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한 왕국 두 체제론’과 존 칼빈의 ‘절대 주권으로서의 국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으로서의 국가 이해’ 등을 소개한 뒤 “국가에 대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길에 서는 것”이라며 “특히 교회가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국가가 그것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전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두 경우 모두에 교회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는 종말에 대한 신약적 해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목사는 “국가가 공권력을 바로 행사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면 교회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결코 국가 법질서에 치외법권자가 아니다”며 “그러나 국가의 폭정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념에 빠져 국가의 불의에 눈 감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공의를 무시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예배와 교회 세대간 통합예배

황갑수 목사는 “한국교회가 취약한 상태에 빠진 상당한 원인은 교회의 구조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정이라는 단위 대신, 성별·연령별로 구분해서 사역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많은 신자들의 가정이 영적·정서적 분리 속에서 피상적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교육의 주체가 교회라는 잘못된 의식에 함몰됐고, 그 책임을 맡은 주일학교는 영향력의 한계에 빠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신호섭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황 목사는 “초창기 한국교회 상황이 부부나 자녀들 중 홀로 출석하는 신자들이 많아 그러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음을 자각하고 우리 개혁교회부터 먼저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서의 가치관 정립과 교육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오늘날은 개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돌아보는 교회가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더 효율적이고, 따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감히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충분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남편에 대한 신뢰 위에서만 구현되고,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자기 희생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엡 5:22-23)’는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된 문제, 즉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는 기초인 ‘친밀감의 부재’일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되고 친밀한 부부관계가 성장해야 하는지를 ‘개혁된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할 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구원의 방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녀양육을 위해선 ‘가정예배’를 추천했다. 그는 “개혁교회가 물려준 귀중한 유산이자 전통인 ‘가정예배’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일”이라며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구조적 개혁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예배’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큰 집회, 큰 교회가 부흥인가?

신호섭 교수는 “교회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한다”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시기 때문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개혁 교단 또는 보수 신앙이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 행정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어정쩡한 보수가 아닌, 진짜 보수가 돼야 한다(마 21:12-13)”고 했다. 그는 “비성경적·반성경적인 것은 과감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진짜 보수를 하려면 개혁 신학과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개혁 정신(Re-formed spirit)은 성경을 기준으로 발생했을지 모르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신앙과 행정상 오류를 고치고 갱신하는 신앙 정신”이라며 “그러므로 치리회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권징이 필요하다. 하나님보다 교인을 더 무서워해선 안 된다.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개혁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큰 집회, 큰 모임, 큰 교회가 곧 부흥이요 힘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개선하거나 선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새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다”며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그 결과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절망하게 만들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한의사랑
한의사 Zo'e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손만두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50개 $20) 왕만두, 팥찐빵(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ea
주님과 동행하는 사 30
탁상달력 사전 주문 시작합니다.
9월 30일 이전까지 주문완료 해주신 교회한해서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착오없이 빠르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탁상달력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달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유다 시대의 성벽과 성안나 교회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8)

웅장한 지하 도시의 기억 – 벧구브린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벧구브린으로 가는 길

벧구브린(Bet Guvrin)은 유대 산악 지역의 남쪽 끝자락에서 만나고, 동쪽으로는 유대 산악 지역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평야와 만난다. 텔아비브에서 베이트 구브린 마레사 국립공원(Beit Guvrin-Maresha National Park)으로 가려면 Yitzhak Rabin Hwy. 6번 도로를 지난 1번 도로를 경유하여 가면 78.9km로 55분이 걸린다.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44분이 소요된다.

벧구브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75번 도로를 지나 386번 도로를 경유하면 52.6km로 1시간 2분이 소요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27분이 걸린다. 거리상으로는 텔아비브보다 짧지만 예루살렘은 산악 지대에 있어 평야에서 산악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벧구브린의 역사

벧구브린은 '마레사'라는 원래 지명을 가지고 있다. 마레사는 유대 평지에 있는 성읍 중 하나였고 유다 자손의 기업이었다.(수15:44) 왕정시대에 르호보암이 요새를 구축했으며(대하11:8) 중요한 남쪽 방비 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다 왕 아사가 왕이 되어 구스 사람 세라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큰 전투를 벌였고 아사는 크게 승리한 기사가 성경에 나온다.(대하14:9-14) 마레사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에셀이다.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향하여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선포한다.(대하20:37)

미가 선지자는 마롯 거민과 라기스 거민을 꾸짖을 때에 마레사 거민도 언급한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 자손의 영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다.(미가 1:15)

페르시아 시대(BC 6세기)를 거쳐 시도니안 사람들이 BC 4세기에 거주하였다. 그리스 시대가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이곳에 소개되고 그 유적의 무덤이 벽화로 남아있다. 이 시대에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직물업이 발달하였다.

BC 113년에 요한 힐카누스 1세에 의한 하스모니안 왕가가 지배하였으며 거주민들이 유대주의로 변화되었다. BC 40년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드문드문 회복되었던 거주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AD 68년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에 의해 정복되어져 유대인들의 주요 거점 지역이 되었다.

자유 도시 벧구브린

AD 200년 로마 황제는 벧구브린을 자유 도시로 바뀌었다. 로마 황제는 거대한 지하 물 저장고를 건설하였고 지하도시를 건설하였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센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 아랍 시대와 십자군 시대를 맞이하여 십자군의 주요도시가 되었다. 그 잔해로 성안나 교회가 지금도 부서진 벽면을 가지고 마레사 동편에 남아있다.

1948년 10월 29일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한 점령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1949년 5월 경 키부츠가 세워졌다. 1989년 아모스 교수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져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의 하나가 되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연결시켜주던 교통의 대로에 있었기에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맛보았고 지금은 잊혀진 도시로서 쓸쓸한 바람만 세펠라에서 유대 산악 지역으로 불고 있다. 엘라 골짜기에서 가드 쪽으로 가다보면 벧구브린 국립공원이 나타나는데 약 3시간 정도 걸어서 지하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벧구브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플리쉬 동굴은 원래 물 저장고였던 것을 비둘기 집으로 개조한 것이다.

2차 대전 중 폴란드 군인들이 이 동굴에서 기둥들을 잘라갔고 독수리 모양의 기둥은 폴란드 군대의 상징이 되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비둘기 집은 2,000개 구멍을 파서 비둘기 집으로 만든 곳이다.

BC 3세기 비둘기 사육장과 창고로 이용되었던 이곳은 석회암 동굴로 지질이 연하여 동굴을 파기가 아주 쉬운 곳이다. 그 외에 목욕장과 올리브 기름틀을 볼 수 있다. 또 BC 100년 경에 만들어져 AD 3세기까지 사용되었던 주거지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주거지 흔적에서 거대한 물 저장고로 나오는 지하도시는 로마의 카타콤이나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데린구유'에 비할 바 못되지만 나름대로 웅장한 지하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가 발굴 되어진 것은 아니고 갈 수 없는 길이 있으므로 이곳을 방문할 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언덕 위에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성벽 유적지가 남아있고 중앙은 무덤 지대로 되어 있다. 주차장과 휴게소 옆에는 시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과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은 BC 3세기에서 2세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벧구브린의 구경 백미는 바로 벨(Bell) 동굴이라고 한다. 비잔틴 시대에서 이른 아랍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이 동굴은 80개의 벨(종) 모양의 굴 모습과 지붕을 볼 수 있다.

여러 종 모양의 형태에서 아랍, 기독교 문화의 형태를 살펴 볼 수도 있다. 지하 도시 구경을 이제 마쳤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동굴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벧구브린을 떠난다.

〈계속〉

비둘기 사육장

벨 동굴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
제러마이어 버로스 | 생명의말씀사 | 192쪽

세속화의 특징, 세속화로 일어나는 악행, 세속적 마음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 세속화의 이유, 세속화에 대한 심각한 경고, 세속적이 되지 않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17세기 사랑받던 청교도 지도자 중 하나로, 과장이나 허세 없이 명료한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왕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출판사의 '리폼드' 시리즈 13번째 책으로, 청교도 고전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약의 기도
톰 라이트 | 백지윤 역 | IVP | 176쪽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톰 라이트 에브리원 주석 시리즈'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된, 기도에 관한 신약성경 강해와 묵상을 담고 있다. 예수님과 바울의 기도가 주를 이룬다. 저자는 신약성경 중 기도 관련 모든 본문을 강해하고 신약의 기도라는 보화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2015년 〈신약의 모든 기도〉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의 개정판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 키우기
여운학 | 규장 | 232쪽

저자는 45년간 말씀암송의 삶을 살면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말씀을 암송하고, 태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암송을 시키면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리라'는 비전으로 '303비전성경암송학교'를 이끌었다. 하나님 안의 자녀양육을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품성교육과 성경 암송교육,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말씀양육 등을 강조한다.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
이관직 | 두란노 | 280쪽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의 저자가 쓴 불안과 두려움 극복에 대한 책이다.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결과로서 방어 기제와 대처법 등을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와 말씀을 예로 들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불안과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짓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지맘의 괜찮아』는 발달장애가 있는 딸 예지(9세)를 키우는 어머니 오민주 씨의 기록이다.

필자는 지난 해(2016년) 여름, 딸이 연출한 뮤지컬(This is our story)를 관람한 적이 있다. 그 뮤지컬은 나사렛대 재활자립과 발달장애 대학생들이 다수 참여해 무대에 올린 작품이었다.

그 공연장에서 필자는 우연히 저자와 같은 줄에 앉아 뮤지컬을 관람했다. 그 날 저자는 공연을 보며 시종 펑펑 울었다. 나중에 나는 딸을 통해 그분이 '예지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1년 남짓한 세월이 지난 후, 저자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8월 29일 초판 1쇄).

딸이 연출한 뮤지컬은 본 후, 나는 발달장애에 관한 책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집필하거나 번역한 이 분야의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계성 자폐장애인'이라는 전문용어도 접했다. 평상시 잘 알지 못했던 세계를 들여다 보면서 잠시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이번에 출간된 『예지맘의 괜찮아』는 나의 이런 소소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책이다. 이 책에서 예지맘은 예지의 출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단 결과를 수용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지맘의 괜찮아
오민주 | 젤리판다 | 260쪽

번민의 날도 있었고 자책의 시간도 없지 않았으나, 저자는 천성의 긍정 마인드와 적극적 태도로 이 긴 터널을 통과했다. 저자에게는 분명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도 있었다. 하지만 종교적 신앙심과 예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을 헤쳐나갔다.

'맘스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예지맘의 괜찮아' 코너를 진행하는 예지맘, 오민주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전한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화같은 왕자와 공주입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저자는 부모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꽃피우는 역할을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고 격려한다.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눈물로 뿌린 씨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바라기는 이 책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이 책의 저자 인세는 발달장애 고아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 (714)527-0691(0692) Fax :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 백지영 박사 부총장 :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강력계 수사 방식으로 파헤친 예수와 성경 팩트체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증하기

각기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있고 가장 잘하는 것, 익숙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불편해하고 그 무기를 버거워 한 것은, 다윗에게 사울의 것이 크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가 자신이 고른 돌들과 막대, 그리고 물매가 그 어떤 것보다 익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했다. 다윗에게는 그가 가진 가장 원시적인 것이 그의 최고의 무기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 목표는 같다.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지나치게 자신의 형식과 틀에 묶여 다른 좋은 것에 전혀 눈돌리지 않는 것은 문제겠지만, 자신이 가장 못하는 것, 불편한 것을 첨단과 새 지식이라는 이유로 매어달리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 시작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다윗도 처음엔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했지만, 골리앗의 목은 사울의 칼보다 더 컸을 골리앗의 칼로 베었다. 이후 다윗은 도망자로서 무기가 없을 때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군인으로서도 성장했다. 처음엔 익숙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베테랑 형사 복음서 난제를 수사하다〉의 저자 J. 워너 월리스가 그런 듯 싶다. 그는 처음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의문을 풀어감에 있어 전통적인 변증이나 성경공부와는 다르게 접근해 간다. 강력계 형사로서 오래 근무했던 저자는,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의문과 관심에 접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더 깊이 그를 알아가게 되었다.

이 책도 그런 결과물이다. 특히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회의론자, 비판자들에게 그가 가장 잘 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마치 중식 세프가 그에게 익숙한 중화도와 웍스로 사랑하는 애인에게 일본음식을 만들어 준다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일식용 칼과 도구를 무리하게 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쉬울 듯 하다.

저자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미제

베테랑 형사
복음서 난제를 수사하다
J. 워너 월리스 | 장혜영 역
새물결플러스 | 430쪽

사건, 곧 '콜드 케이스'인 양 접근한다(책의 원제가 Cold-Case Christianity이다). 그래서 책 초반에 여러 가지 수사기법과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한다.

이것은 마치 형사나 탐정소설을 읽는 듯한 분위기와 재미도 제공한다. 강력계 형사였던 저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흥미 유발을 위해 이 기법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접할 때 갖기 쉬운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경의 관련 증거를 객관화시키고 풀어간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시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풀어가고 조사해 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 접근 같지만 그들이 가진 주관적이거나 편견을 하나 하나 변증해 간다. 이것을 통해 독자들은 색다르지만 복음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더해가게 된다.

폴리스 라인 수사 범죄 앞서 언급했듯이 저자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강력계 형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기독교에 다가갔고, 그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증거한다. 그러한 표현들은 곧 그가 추구하는 방식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함이다.

사실 저자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의 방법을 통해 만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이를 더해 신학을 공부하고 배움을 통해 그의 깊이를 더해갔다. 그 산물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독자를 사로잡긴 하지만 그 내용이 그저 기발하거나 가볍지는 않다. 오히려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사람들이 갖기 쉬운 의문이나 변론에 관해 다양한 자료와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간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재미있지만 가볍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C. S. 루이스나 쟈끄 엘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문학가나 법학자로서, 신학을 대하는 아마추어리즘을 떠나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신학으로서도 그들의 성취를 드러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성경을 배워나가고 묵상하고 좋은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을 읽고 연구함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초기에는 물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노년까지 그것을 붙들고 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과 직업, 특별한 학식을 통해 만난 이들이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신학을 전문가인 양 쉽게 이야기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에게나 그 주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공동체나 교계에서 이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자신의 학식에 교만해 성경을 알아가거나 배우는 데 게으른 이들이 있다.

반대로 신학적으로 탁월성을 가진 신학자나 목회자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이나 정치 등 다른 영역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진리인양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본다. 이런 이들은 다양한 책들을 읽고 겸손히 배워야 한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의 저자처럼 그 증거를 찾아가고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워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재미있다. 변증을 함에 있어 색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새롭게 복음과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제공한다. 저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색다르게 복음에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우리도 각기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믿음과 신앙에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듯하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아동교육의 원리를 개혁한 페스탈로치의 교육 고전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은자의 황혼
페스탈로치 | 김정환 역
서문당 | 234쪽

〈은자의 황혼〉은 페스탈로치가 1780년 출판한 책이다. 페스탈로치에 의하면, 자연 본성의 요구가 건강하게 충족되는 생활 가운데 비로소 인간은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정서를 갖출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인간의 도덕심이나 종교심도 침식당하기 때문이다.

페스탈로치에 따르면 우리가 유년기의 습관 형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건강이며, 둘째는 그 성격이다. 우리는 아이가 남에게 호감을 사고 생존 경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다행히 건강과 성격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한 쪽에 이로운 것은 동시에 다른 쪽에도 이로운 것이 된다. 페스탈로치가 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격이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페스탈로치에 의하면 자연의 길은 교육의 원천이며, 인간의 본성을 흡족히 채워주는 밑바탕이다. 자연은 너그럽게 기다리며,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말의 순서를 밀어넣는 인위적인 학교 교육은, 어린이를 겉으로만 반짝이게 할 따름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속에 깃들어야 할 자연력의 결핍을 안 보이게 덮어 버림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경박한 시대의 사람들만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12쪽).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시다. 페스탈로치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본성의 가장 높은 관계에서 인간 감정의 터전이며, 하나님의 어버이 마음에 신뢰하는 자녀 마음의 발로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생에 주는 힘의 근원이며, 우리 안에 깃든 능력을 응용하는 질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야해 지혜로 이끄는 근원이며, 지혜는 인류의 만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모든 지혜와 모든 성스러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인류의 본성 안에 깃들어 있다. 이 신앙심은 이 세상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깊숙히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페스탈로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신앙의 순수한 원리라고 그는 역설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신앙심을 갖는 것은 모든 순수한 국민 도덕의 원천이 되며, 모든 민복(民福)과 민력(民力)의 원천이 된다.

페스탈로치는 이론과 실천을 통해 위에서의 교육 및 겉치레의 교육에서 아래에서의 교육, "초가의 그늘에 누워있으나 본성으로 본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그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인간성의 힘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인간성의 선천적인 힘과 소질을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조화롭게 계발하자는 것이 그의 교육방법의 핵심이다.

〈은자의 황혼〉은 교육자로서 페스탈로치의 지위를 규정할 만큼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고전이다. 루소의 영향을 받아, 페스탈로치는 고아교육. 아동교육에 생애를 바쳤다. 자연에 입각한 인간 형성을 교육원리로 하고, 지능, 신체, 도덕의 조화적 발달을 교육의 목표로, 개인의 독립에 의한 개혁을 기도하여 근대 유럽 교육 사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설교자를 위한 필독서!

설교를 위한 생생하고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박영재 지음 / 356면 / 15,000원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라

한국인 최초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효성교회 박영재 목사의 위로의 선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깨닫고 울고 감동하며 위로*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책!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책!

가수 EXID의 솔지, "책을 읽는 시간 내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진주로 바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이석훈 교사,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일신여중 김종서 교감, "영혼이 맑아졌어요."
경인교대 김재운 교수,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천교회 김진홍 목사,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주부 진선미 씨, "책이 쉽고 재미있어 단숨에 읽었어요"
고3 한수림, "지쳐 있었던 제게 이 책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현아 지음 / 400면 / 15,000원

추격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던 필자는 자신의 궁금증이 **'성경의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호기심은 아닌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궁금증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목사들이 읽어도 좋고 평신도가 읽어도 좋을 만큼 논리적으로 잘 쓴 책" 현 평양제일노회장, 칼빈신학대 교수 **서문강**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쿰란출판사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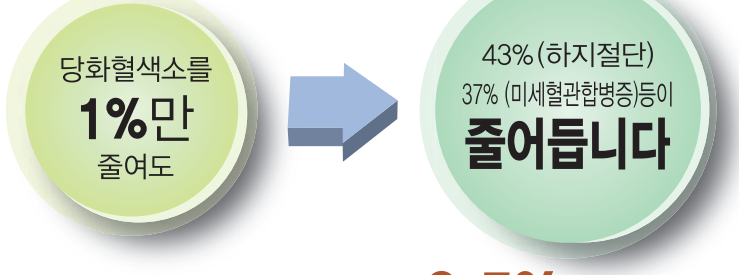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